



협회 직원, 직무연구발표회 갖기로

협회는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인 제안과 고안사항 등을 적극 개발토록 하여 산업보건업무의 발전적인 개선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전직원에게 시달하였다.

직무연구 발표대회 대상은 과장급이하 전직원으로서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각기 제안범위를 두고 있으며, '93. 5. 1 ~ '93. 12. 31. 까지의 기간동안 연구한 내용에 대하여 내년 3월 예정인 직원 연수교육시 발표대회를 갖을 계획이다.

이 대회 우수제안자에게는 시상 및 포상과 함께 인사상 특전부여가 있다.

일기협, '93 회원검진기관 행정 실무자교육 실시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회원기관 1,350여개소의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93년 협의회 중점사업방향과 아울러 건강진단 실시 요령 및 제서식 작성요령에 대한 실무교육을 5월 18일부터 지부별로 실시하고 서울, 인천, 의정부, 강원, 울산지역은 6월중에 실시된다.

제8차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 성료

제8차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1993. 5. 17 ~ 5. 18. 일본 경도 平安會館에서 한·일 양국의 산업보건전문가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

쳤다. 일본측 참가자 100여명과 한국측 참가자 60여명이 참석한 금번 한일집담회는 8차에 걸쳐 양국 교대로 개최되어오면서 가장 규모가 크게 개최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전국노동위생연합회와 일본 대학들도 다수 참가하여 명실공히 양국의 산업보건전문가 학술대회로 정착되었다. 더욱이 이번에는 그동안 원로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던 동 학술집담회를 영구히 지속하기 위하여 50대 미만 참석자들로써 청년교류회를 갖고 산업보건에 대한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토록 하였다.

한편 동 집담회개최 전야에는 당협회와 일본 전위련(全衛連)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소개시간도 마련되어 양 기관의 사업내용과 성과 등에 대한 심층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또한 동집담회에 참가한 중국측 대표도 향후 집담회가 중국측 전문가들도 함께 참가하여 한·일·중 교류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시아산업보건학회는 오는 94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한일 집담회는 아시아산업보건학회가 열리는 94년도에는 유예케됨으로써 제9차 집담회는 95년에 서울에서, 제10차 집담회는 일본 북해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 전문위원회 개최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는 지난 5. 24(월) 팔래스호텔 12층에서 전문위원회를 열어 93년도 협의회 사업계획추진에 따른 업무토의와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